

# 일제강점기 제주인의 이주노동과 제주사회의 변동

- 제주와 오사카 간 해상항로의 영향을 중심으로 -

노 우 정\*

- I. 머리말
  - 1. 연구의 목적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의의
- II. 해상운송로의 확장과 제주인들의 이주노동
  - 1. 근대 이후 제주발 해상항로의 양상
  - 2. 다변화되는 제주해녀의 출가물질 지역
  - 3. 일본의 산업화가 촉발한 이주노동의 확장
- III. 재일 제주인 공동체와 제주사회의 변동
  - 1. 재일 제주인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특징
  - 2. 일본으로의 이주노동과 제주사회 변동의 관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원고는 일제강점기 제주도와 일본을 잇는 해상운송로의 개설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제주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변방이었고 일본에 의한 개항 이후에도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잉여노동력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어업과 해녀의 물질 정도가 근대적 시장경제에 적응하며 경

\* 제주대학교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librrara@jejunu.ac.kr)

쟁력을 갖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할 물적인 토대가 없었던 것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당시 제주인들은 섬의 바깥에서 대안을 찾아냈다. 해녀들은 한반도 내륙과 일본 등을 넘나들며 ‘출가물질’을 했고, 제주인들 다수는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서 공장에 취업을 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고도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외부의 노동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산업기반이 없던 제주인들은 일자리를 얻고,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구하는 셈이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잇는 해상운송로가 개설되고 또 확장되었다. 일본에 정착하는 제주인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주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양국 간의 교류는 장기간 단절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해상운송으로 인한 이주노동의 여파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제주로 귀환하지 않은 제주인들에 의해 제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제주-오사카를 잇는 해상운송로의 개설은, 그로 인한 지속적인 인적교류가 국경을 넘어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출가물질, 근대화, 재일제주인, 이주노동, 일제강점기, 해상항로, 제주해녀, 공동체, 제주-오사카

## I. 머리말

### 1. 연구의 목적

1629년부터 1823년까지 약 2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제주는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가운데 자급자족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다. 바로 조선의 중앙정부에서 제주지역 주민에 대해 육지로의 이탈을

우려하여 실시한 ‘출륙금지령’ 때문이다. 한때 제주는 풍부한 목재를 활용한 대형선박의 건조를 능숙하게 해내던 해양세력의 본거지였다. 따라서 한반도와 중국, 일본 사이에 자리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번영을 구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제주는 공납의 운송, 관료의 이동 등의 공적인 분야로 제한된 해상교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립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sup>1)</sup>

제주인들을 구속하던 이동 제한의 족쇄가 풀린 시기는 공교롭게도 서구세력이 확장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근대로의 전환을 강요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근대화의 맹아가 엿보이던 한반도 내륙과 달리, 출륙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제주사회에는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다. 제주도가 비교우위를 갖는 수산물과 일부 목축업 생산물 등에서 부분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근대적 시장경제의 형태로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내부적으로 정체가 계속될 즈음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서구적 근대로 이행해 가던 일본이 제주사회와 제주인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주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던 수산업자에서 시작한 일본의 영향력 확장은 1920년대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적 해상운송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가속화된 제주-일본의 교류는 제주사회에 심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해방 후 80년, 항로개설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제주와 일본, 특히 제주와 오사카 지역이 형성해온 특수관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耽羅文化』 제26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05, 61~62쪽.

〈표 1〉 오사카시 출신지역별 재일코리안 수의 변화추이(1937년과 2000년)<sup>2)</sup>

1937년(재일 코리안 전체 약 80만 명)		2000년 <sup>3)</sup> (재일 코리안 전체 약 64만 명)	
본적	오사카 지역(%)	본적	오사카 지역(%)
경상남도	63,989(27.3)	경상남도	36,287(22.6)
경상북도	32,419(13.8)	경상북도	24,579(15.3)
전라남도(제주도 포함)	96,674(41.3)	제주도	64,730(40.3)
		전라남도	14,816(9.2)
경기도	4,308(1.8)		
충청남도	7,251(3.1)	충청남도	1,853(1.2)
전라북도	15,114(6.5)	전라북도	1,934(1.2)
충청북도	6,352(2.7)	충청북도	1,779(1.1)
강원도	1,804(0.8)	서울시	5,676(3.5)
황해도	1,703(0.7)	부산시	4,717(2.9)
평안남도	1,788(0.8)	기타 지역	4,305(2.7)
평안북도	1,036(0.4)		
함경남도	1,067(0.5)		
함경북도	683(0.3)		
합계	243,188(100)	합계	160,676(100)

1937년 당시 제주도가 속한 전라남도 출신의 오사카 거주 조선인 숫자가 전체 규모의 41.3%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방 50년이 넘게 경과한 2000년의 자료를 보면 제주도 출신이 40.3%이고 전라남도 출신이 9.2%인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도 출신자의 비율이 대략 5:1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역산해보면 1937년 당시 오사카 거주 제주인의 숫자는 6만 명을 전후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 제주도 인구가 198,304명이었다는 것

2) 한종완, 임영언, 「재일제주인의 문화정체성과 제주도경제사회 관계 연구」, 『재외한인연구』 0(34), 재외한인학회, 2014, 142쪽.

3) 인용한 자료의 조사시기가 2000년인 것을 감안하여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였으나 용이하지 않았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서는 매년 한국 국적, 조선적을 포함한 재일동포의 숫자변화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16년 1,936,843명으로 최대에 이르렀던 것이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한반도로의 귀국에 따라 647,006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에는 436,167명으로 조사되었는데 고령으로 인한 자연감소와 더불어 일본으로의 귀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재일동포의 경우 3~4세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의 출신지역에 대한 동질감이 많이 희석되었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을 볼 때 과도할 정도로 많은 제주인이 일본에 거주한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이 연구에서는 우선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제주인들이 대규모로 고향을 떠나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 해상항로 개설은 제주인들의 대규모 이주노동<sup>5)</sup>을 촉발한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sup>6)</sup> 하지만 국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일본의 사정이나 인력의 대거 유출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의 상황이 결합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대이동은 없었을 것이다.

해방 이전 일본은 전쟁특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었고 인력부족이 상시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식민지출신의 저임금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면서 근대적 산업기반이 거의 없던 제주사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새로운 탈출구가 열린 셈이었다. 특히 오사카 지역에 집중된 이주노동 초기, 제주인들 대다수는 하층 노동자로 편입되었으나 점차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주노동에 탄력이 붙으면서 제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맞서 다양한 사회적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이는 해방공간에서 4·3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대규모 집단적 이주노동 경험이 단순히 제주사회에 경제적 이익만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고 제주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제주사회가 갖는 정체성의 일부마저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 초기에 제주의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주노동의 규모와 양상의 편차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 각 출

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 2, 일제강점기』, 제주특별자치도, 2011, 35쪽.

5) 해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출가물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해녀가 아닌 공장노동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일제강점기 당시의 용어인 ‘내지출가’나 ‘출가노동’ 대신 ‘이주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6) 하라구치 쿠만, 『제주도의 지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0, 145-146쪽.

신지역별 유대감을 토대로 형성된 향우회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의 조직과 활동이 해방 이후 이렇다 할 산업적 토대가 없었던 제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제주인들이 보여준 다양하면서도 능동적인 대응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를 전후로 제주지역에 들어선 필수 사회간접자본의 상당 부분은 재일 제주인의 경제적 기여에 의한 것이었고 감귤산업의 본격화 역시 일본 내 제주인의 기부에 힘입은 바가 컸다. 지역별 향우회 등이 중심이 된 이러한 재일 제주인들의 헌신적인 기부활동으로 인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0년대 이후 제주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서도 나름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으로의 이주노동 확대라고 하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제주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재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재일 제주인들을 중심으로 제주사회의 구성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대응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거침없이 진행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은 물론이고 능동적 발전까지 모색할 수 있었던 잠재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동적인 근대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출가물질을 비롯한 이주노동의 역사적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주인의 삶의 토대는 물론이고 정체성 일부를 형성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해녀의 출가물질, 오사카 지역 공장 지대로의 이주노동, 그리고 해방을 전후로 본격화된 재일 제주인들의 출신지역별 공동체의 형성과 이를 통한 해방 이후 제주사회로의 다양한 기여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현상들이 맺고 있는 상관관계와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는 것을 핵심

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출가물질, 이주노동, 재일 제주인의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먼저 해녀의 출가물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른 시기 강대원(1970)은 한반도 남부로의 출가물질에 대해서는 소상히 다루면서 일본으로의 출가물질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남부를 제외하고는 출가물질의 경로가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돈(1999)은 출가물질의 명칭을 ‘바깥물질’이라고 부르면서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에 이르는 출가물질 전반에 대해 다루었다. 해녀의 민속학적, 인류학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당시 시대상황 및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좌혜경(2006)은 일제강점기 출가물질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연구를 통해 당시 출가물질의 양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추가하였는데, 안미정(2016)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맥락에 따라 출가물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오사카 지역으로의 이주노동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일본인 학자가 현지 조사를 통해 연구한 것이 있다. 마쓰다 이치지(栉田一二)(1935)는 당시 제주도를 수시로 오가면서 행정당국의 원활한 협조를 얻어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놓았다. 제주도 각 지역별로 구분한 이주노동의 규모와 벌어들인 수익의 양상, 더불어 오사카 지역 내 공장주들의 제주인들 작업태도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서지영(2010)은 특히 제주에서 오사카 지역으로 이주노동을 떠난 여성들에 주목하였다. 이주노동이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식민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억압구조 속에서도 일정 정도의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희생을 감내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사카 일대의 제주인 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한종완·임영언(2014)은 재일 제주인들이 한반도 내 다른 지역 출신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이 제주에서의

출신지를 매개로 하는 친분에서 비롯되어 집단 거주지 형태로 이어지면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향우회를 비롯해 출신지역별 소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먼저 고광명·진관훈(2006)이 재일 제주인의 일본 내 산업활동과 해방 이후 제주 출신지역을 향한 시기별 기여활동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김희철·진관훈(2007)과 고광명(2008)은 앞선 공동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 당시 일본 내에서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재일 제주인 공동체의 현황과 제주도에 대한 기여활동에 대해 각각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어진 연구에서 고광명(2018)은 재일 제주인들의 기여활동의 양상을 시기별은 물론이고 출신지역별로 소상히 밝혀놓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해녀들의 출가물질, 오사카 지역 공장 지대로의 이주노동, 해방 이후 재일 제주인 공동체의 형성과 고향으로의 기여활동에 대해 각각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앞선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위에서 보여주는 각각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위들이 상호연관성을 맺으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에서 맞이한 근대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육지로부터 고립된 섬이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야 했던 제주인들의 역동적인 삶을 역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이 글이 지니는 차별성이 될 것이다.

## II. 해상운송로의 확장과 제주인들의 이주노동

### 1. 근대 이후 제주발 해상항로의 양상

1876년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개항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물론 제주 역시도 본격적인 근대로의 이행을 시작하게 된다. 법과 제도에 의해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가 보장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출륙금지령 이후 오랫동안

안 자급자족 상태에 머물렀던 제주지역 경제 역시도 시장을 위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화산지대라는 지질적 특성으로 인해 벼농사가 여의치 않고, 비바람의 피해가 큰 기후 특성으로 소규모 밭농사에 노동력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제주의 농업생산물은 차별적 경쟁력을 갖기 힘들었다. 다만 해녀의 물질노동 정도가 대형선박과 선진 어로기술을 앞세운 일본 수산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뿐이었다. <표 2>는 1936년 조선인과 일본인의 어획고를 어업유형별로 비교한 자료이다. 이를 보면 한반도 연해에서 조선인이 거둔 어획고를 화폐로 환산했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바로 제주해녀의 물질노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 조선인과 일본인의 어업별 어획고(1936년도)<sup>7)</sup>

(단위: 원)

조선인	나잡	332,797	일본인	연승	282,600
	연승	153,900		기선저인망	204,800
	조어	69,030		포경	110,210
	방진망	25,370		돌붕	66,600
	기선건착망	22,800		기선건착망	66,000
		760,707			1,416,325

별다른 산업기반이 부재하던 당시 제주의 상황에서 해녀들의 물질노동이 거의 유일한 상품경제의 기반이었던 셈이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농업과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던 대다수 제주인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가능한 대안은 타지역 경제권으로 이동하여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른바 ‘이주노동’이 거의 유일했다. 제주해녀들의 내륙으로의 출가물질은 그러한 이주노동의 대표적 사례였다. 해녀가 아닌 제주인들의 경우 내륙에 산업기반이 있었다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여지가 충분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 상황은 제주와 마

7) 제주발전연구원, 『재일제주인 애향백년』, 제주특별자치도, 2010, 87쪽.

찬가지로 산업기반이 극히 적었던 것에 비해 잉여 노동력은 적지 않게 존재했다.

한편 일제는 1910년 조선강점 이후에 식민지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와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교통, 통신 등 근대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갔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제주인들은 내륙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해상운송수단을 적극 확보하고자 했다. 1894년 이종문이 인천 소재의 굴력상회(掘力商會)와 교섭하여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연안 기선을 월 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 내 항구시설의 미비로 안전상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운행으로 인한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면서 불과 3년 만에 항로가 폐지되었다.<sup>8)</sup>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상운송이 활발해진 것은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명령항로’를 운영하면서부터이다. 명령항로 개설은 해운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수익이 적은 구간에도 정기적인 선박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913년 4월에는 제주-목포 간에, 1915년 4월부터는 제주-부산 간에 정기항로가 개설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면 태서환(太西丸)(228톤), 황화환(晙和丸)(380톤), 보성환(寶城丸)(200톤) 등으로 운항 선박과 이들의 운항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sup>9)</sup> 1928년에 이르러 제주-목포를 잇는 항로는 월 9회, 제주-부산 간 항로는 월 5회로 운항이 확장되었다. 그 후 점차 승객과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1930년대부터는 제주-목포 간의 경우 매일 운항하기에 이른다. 제주에서의 항로는 아침 5시에 출발하여 조천, 김녕, 성산, 서귀, 모슬포, 한림, 애월, 추자, 벽파진을 거쳐 목포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10)</sup> 일제강점기 후반까지 제주의 항구 대부분이 대형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선박이 항구 외부에 머물면 작은 배로 사람과 물자를 옮겨야 했다.

8) 김은희,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73-74쪽.

9) 현미애,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항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0쪽.

10) 강동식, 『일제강점기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발전연구원, 2009, 280쪽.

목포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해상운송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것은 물질노동을 수행하는 해녀들에 한정되었다. 언어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는 한반도 내륙지역은 제주인들의 이주노동을 수용할 만한 산업적 기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인들에게 주어진 대안은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의 이주노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3년에 이미 인천과 오사카 노선이, 1902년에는 원산과 오사카, 모지를 오가는 조선-일본 간 항로가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일본을 오가는 정기항로가 개설된 것은 경부선 철도가 완공된 직후인 1905년 9월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부관(釜關)연락선 항로가 개설되면서였다. 따라서 일본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제주인들 역시도 부관연락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는 것은 내륙을 거치지 않고 제주와 일본을 운항하는 항로가 개설되면서부터이다. 물론 1918년에 이미 ‘함경환’이라는 500톤급 선박이 제주-오사카 항로를 운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비정기 노선이기도 하거니와 선박회사의 편의에 따라 부산, 목포 등을 경유했기 때문에 제주인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도항 수단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주와 일본을 잇는 본격적인 항로는 1923년<sup>11)</sup>과 1924년<sup>12)</sup>에 걸쳐 아마가사키 기선부와 조선우선주식회사에서 각각 시작한 제주-오사카 간 직항로 운항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마가사키 기선부가 운영한 ‘군대환(君代丸, 기미가요마루)’은 해방 직전까지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던 선박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했다.

## 2. 다변화되는 제주해녀의 출가물질 지역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제주도의 해녀였다. 이는 제주도 내의 해녀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

11) 현미애, 앞의 책, 2020, 17쪽.

12) 하라구치 쿠만, 『제주도의 지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0, 139쪽.

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제주해녀는 물질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쉽게 적응해갈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근대 이전과는 달리 해녀의 물질기술을 습득하려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치열해진 내부 경쟁은 '출가물질'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근대 이전 제주사회에서 해녀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꺼리는 직업이었다. 관청에서 관리하는 '잠녀안'에 기재되어 지방관의 지시하에 미역, 전복 등을 채취하여 공납물품을 조달하는 의무를 지는 신분적으로 예속된 존재였다. 해녀 혹은 잠녀는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특수직 종사 여성들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직업적 물질과는 별개로 해안마을 여성들 중 일부는 자가소비를 위해 물질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녀라는 것이 천역(賤役)으로 간주되었던 측면이 컸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해녀의 숫자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1695년(숙종 21년) 제주목사로 있던 이익태가 남긴 기록에는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해녀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많아야 1,000명 정도의 해녀가 제주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상(進上)하는 추인복(搥引鰵: 말린 전복)을 전복잡는 잠녀(潛女: 해녀)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왔는데, 늙고 병들어 거의가 담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역 캐는 잠녀가 많게는 800명에 이르는데...<sup>13)</sup>

이를 보면 전복을 채취하는 해녀와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녀의 숫자는 개항과 일제강점을 거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대략적인 해녀 숫자의 증가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이익태,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85쪽.

〈표 3〉 제주도 해녀수 및 송금액 현황<sup>14)</sup>

년도	제주도 내 해녀(명)	바깥물질 해녀(명)	송금액(엔)
1910년 이전		500	
1910년	2,950	2,000	
1913년	3,000		
1915년		2,500	50,000~80,000
1926년	7,339		
1929년	7,300	3,500	500,000
1931년	8,166	3,950	687,350
1937년	8,373	4,402	

1913년 말, 당시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남도 제주군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의 인구는 총 187,996명으로 집계되었다. 1910년에 해녀의 숫자가 5천 명 정도인 것을 보면 전체 인구의 약 3%, 여성인구만 보면 약 6%에 가까운 제주여성들이 해녀로 활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해녀 숫자의 급격한 증가 이유는 대체하기 힘든 물질노동의 특수성과 더불어 시장의 확장에 따라 환금성의 증대로 인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해녀들이 채취하는 수산물은 일본 내 소비층이 선호하거나 혹은 군수용품 생산을 위해 필요했던 품목이었다. 일본의 대외침략이 본격화된 1930년대를 전후로 군수산업에 활용된 우뚝가사리와 감태의 채취가 급증한 것을 보면 그러한 선호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다.<sup>15)</sup>

그런데 제주도 연안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해녀 숫자 급증에 따른 경쟁의 심화는 당시 제주 연안에서 무차별적인 어로활동을 벌이던 일본인에 의한 잠수기 어업의 남획과 맞물리면서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주해녀들의 대응은 육지

14)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일제시대 제주해녀의 해조류 채취와 입어」, 『濟州海女 :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 濟州海女 博物館 開館記念 國際學術會議』,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2006, 78쪽에 있는 표를 재가공.

15) 감태에 들어 있는 요오드 칼륨은 진통·소염제를 만드는 원료이자 화약을 만드는 데 쓰였고, 우뚝가사리는 실이 엉키지 않게 하고 염료 정착에도 도움이 되어 섬유업의 중요한 재료였다.

로의 출가물질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남부, 특히 갯벌이 넓게 펼쳐진 전라도 지역보다는 포항, 울산, 부산을 거쳐 통영으로 이어지는 경상남도 해안지역이 출가물질의 주요 대상지가 되었다.

제주해녀의 한반도 남부로의 출가물질은 이미 1890년대에 시작되었으나<sup>16)</sup> 192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1933년의 자료를 보면 제주해녀의 전체적인 숫자는 약 3만 명 가까이 이르게 되고, 제주의 바다를 떠나 출가물질에 나선 해녀의 숫자 역시도 8천명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7)</sup>

하지만 순탄하게 이어져온 해녀들의 출가물질은 해당 지역 어민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된다. 출가물질 지역의 어민들이 어업조합을 결성하면서 어업령에 규정된 조합의 권리를 근거로 해녀들의 물질노동을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입어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출가물질을 ‘관행어업’에 따른 권리로 인정받아온 해녀들로서는 입어료의 인상과 출가해녀 숫자 제한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녀들이 돌파구로 삼은 것은 한반도가 아닌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출가물질 대상지역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다음의 <표 4>를 보면 1937년 무렵 약 4천 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의 해녀들이 한반도 내륙 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역별 출가인원(1937년 3월말 현재)<sup>18)</sup>

국내		일본	
전라남도	408	對馬島(쓰시마)	750
전라북도	19	高知(고지)	130

16) 1915년 당시 제주군의 서기였던 에구치 마쓰다카(江口保孝)는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으로 출어한 것이 최초라고 한 바 있고(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127쪽), 일본의 지리학자 마쓰다 이치지의 연구논문(『개정판』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0쪽)과 일제강점기 경상남도에서 입어분쟁의 과정을 서술한 「제주도해녀 입어문제경과」에는 ‘1895년 부산부 목도에 출어한 것이 처음’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17) 『朝鮮新聞』, 1933년 5월 19일.

경상남도	1,650	鹿兒島(가고시마)	55
경상북도	473	東京(도쿄)	215
충청남도	110	長嶺(나가사키)	65
강원도	54	静岡(시즈오카)	265
함경남도	32	千葉(지바)	51
함경북도	5	愛知(아이치)	
황해도	50	島根(시마네)	
		徳島(도쿠시마)	
계	2,801	계	1,601

해녀들이 한반도 내륙뿐 아니라 일본 등으로 출가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운송로가 지속적으로 확충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일본으로의 출가물질의 첫 기록은 1903년 김병선이라는 김녕 출신의 뱃사공이 해녀 수명을 인솔하여 일본 미에현 미야케지마(三宅島)에 진출한 것이니 연원은 오래된 편이다.<sup>19)</sup> 일본을 오가는 초기 출가물질은 그렇게 소형 어선을 이용해서 일본을 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먼저 부산과 시모노세키, 그리고 곧이어 제주와 오사카 항로가 개설되면서 그러한 불편함은 사라진다. 대형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운송비용도 절감되고 해상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해상운송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제주해녀들의 일본 출가물질도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그러한 결과로 출가물질을 통한 해녀의 소득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출가물질의 수익성은 1929년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던 해녀 7,300여 명이 제주도 연안에서 생산 활동으로 25만 엔을 벌어들인 것과 비교해 일본으로 출가물질을 간 해녀 3,500여 명이 그보다 많은 40만 엔 정도를 벌어들인 것에서 잘 알 수 있다.<sup>20)</sup> 제주해녀의 일본 출가물질이 당시 제주도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35년 일본인 마쓰다 이치지(柘田一二)가 제주도민의 일본행을 다룬

18)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25-26쪽.

19) 柘田一二,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우당도서관, 2005, 123쪽.

20)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11쪽.

논문 「1930년대 제주도민 일본행 출가기록」<sup>21)</sup>을 보면 당시 일본지역으로 출가물질을 나선 해녀들의 숫자와 특성에 대해 두루 알 수 있다. 그는 오사카에 비해 도쿄 인근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제주도민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고 하면서 “그에 반하여 특수노동에 해당하며 반도 출신자에 능하지 않은 나체 잠수어업 특수기능을 소유하는 제주도 해녀만이 (도쿄 인근지역으로) 현저히 진출하여 쇼와 7년(1932년)에는 3,478명의 출가자를 볼 수가 있었으며 다른 직종 노동출가자의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표 4)에서 출가해녀의 숫자가 1,601명으로 비교적 적은 것은 조사시기가 3월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녀들이 일본으로 출가물질을 나서는 시기는 주로 5월과 6월이기 때문이다.<sup>22)</sup> 표를 보면 쓰시마로 출가물질 가는 숫자가 가장 많은 750명인 것으로 나온다. 쓰시마라든지 일본 내의 철도로 이동하는 것이 더 편리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부산을 거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출가물질을 가는 제주해녀들은 대개 제주-오사카 항로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사카 지역이야말로 일본 각지를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 3. 일본의 산업화가 촉발한 이주노동의 확장

1934년 4월을 기준으로 남성 29,365명, 여성 20,688명, 합쳐서 50,053명에 이르는 제주도민들이 오사카, 도쿄 등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 생계 자체를 일본에서 찾고 있었던 셈이다.<sup>23)</sup> 제주

21) 이 논문은 일본학자 마쓰다 이치지(栢田一二)가 「濟州島人の内地出稼に就て」라는 제목으로 1935년 12월(昭和十年十二月)에 『대총지리학회논문집(大塚地理學會論文集)』 제5집(第五輯)에 발표하였다. 이를 2010년 10월 제주도 우당도서관에서 『제주도의 지질』이라는 책에 다른 학자들의 논문들과 묶어서 발간하였다.

22) 하라구치 쿠만, 『제주도의 지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0, 115쪽.

23) 하라구치 쿠만, 위의 책, 2010, 102쪽.

에서 일본으로의 이주노동과 관련된 기록은 1919년 오사카 가네부치(鐘淵) 방직공장에서 제주로 직원을 파견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직공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는 모집활동을 했다는 것에서 처음 보인다.<sup>24)</sup> 초기부터 오사카에서 제주를 찾아와 취업권유 활동을 벌였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주와 일본 오사카 양측에 상호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1919년 한반도에서 3·1독립운동의 열풍이 불던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폐허를 딛고 새롭게 번영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일본은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시기는 일본 근현대사에서 보기 드물게 풍요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세력이 힘을 발휘하던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이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는 제주인과 같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일정 정도 거두게 했다. 한편 일본 산업계에서는 외부 노동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고 있었다. 이는 일본 내의 인구증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그리고 1차대전 동안 산업기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유럽지역으로 일본산 물품의 수출이 이어지면서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은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일본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고베와 교토를 포괄하는 이른바 케이한신(京阪神, けいはんしん)지역에는 방직, 섬유 등 경공업 중심의 공업지대가 형성되면서 노동력이 상시 부족해지게 된다. 그에 따라 일본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잉여 노동력이야말로 낮은 임금으로 충원이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 되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사전허가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했던 도항증명서 제도를 없애고, 식민지 조선인들의 ‘자유도항제’를 실시하게 된다. 비로소 일본과 조선 사이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한편 제주의 입장에서도 일본 이주노동의 장점은 충분했다. 당시 제주에서는 근대적 산업기반이 거의 없던 터라 소규모 밭농사를 중심으로 자급자족에 가까운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더구나 1913년

24) 하라구치 쿠만, 위의 책, 2010, 109쪽.

부터 1916년까지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국유지가 확대된 것은 제주농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총독부에서는 인구급증에 따라 만성적으로 쌀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으로 쌀을 공급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 미곡 중심의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논의 비율이 매우 적었던 제주의 입장에서는 각종 농정에서 소외되면서 농업생산력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sup>25)</sup>

해녀의 출가물질 이외에는 기대할 만한 수익원이 없는 제주로 육지의 저렴한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점차 농업경쟁력마저 상실의 기로에 서게 된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적지 않은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게 된 제주의 입장에서는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다음의 <표 5>는 1926년부터 1936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인들의 인원수를 추계한 것이다.

<표 5> 제주인들의 일본 도항자수 누적 비교표<sup>26)</sup>

연도	도항자			귀환자			차리 증(△감)	누계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1926	15,862	11,742	4,120	13,500	10,029	3,471	2,362	28,144
1927	19,224	14,479	4,745	16,863	12,015	4,848	2,361	30,505
1928	16,762	11,745	5,017	14,703	10,100	4,603	2,059	23,564
1929	20,418	15,519	4,903	17,660	13,326	4,334	2,758	34,322
1930	17,890	12,029	5,861	21,426	15,175	6,251	△3,536	31,786
1931	18,922	11,635	7,287	17,685	12,512	5,533	1,237	33,023
1932	21,409	11,695	9,714	18,307	10,382	7,925	3,102	36,125
1933	29,208	15,723	13,485	18,062	1,356	5,706	11,146	47,271
1934	16,904	9,060	7,844	14,130	8,115	6,015	2,774	50,045
1935	9,484	4,327	5,157	11,161	5,986	5,175	△1,677	48,368
1936	9,190	4,739	4,451	11,095	6,037	5,058	△1,905	46,463

대체로 귀환자보다 도항자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발생했다. 자연스럽게 오사카에는 제주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25) 서지영, 「식민지 시기 일본 공장으로 간 제주 여성」, 『비교한국학』 18(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90쪽.

26)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7, 20쪽.

이러한 상황변화는 ‘군대환’으로 대표되는 정기적 해상항로의 개설에 기인한 바가 크다. 더구나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는 해상운송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점도 대규모 노동력 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1932년을 기준으로 제주-오사카 항로에는 아мага사키(尼崎) 기선의 제2군대환(第2君代丸)과 조선우선회사의 경성환(京城丸), 이렇게 두 척의 배가 월 3회씩 운영되고 있었는데, 당시 최저 요금은 8엔이었다.<sup>27)</sup> 일본 내부에서 오사카와 시모노세키 간을 운항하는 배의 운임이나 목포나 부산을 경유해 오사카로 오는 운임 모두 그보다 비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주인들의 일본 내 목적지는 오사카로 집중되었다. 이렇게 저렴한 운송요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오사카 항로를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운항했기 때문이다.<sup>28)</sup> 이는 일차적으로는 제주에서 일본으로 이주노동을 가고자 하는 적지 않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점에서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사카 지역은 물론이고 제주도 현지의 주민들까지 나서서 ‘우리는 우리배로’라는 구호 아래 독자적인 해상운송을 도모했던 것 또한 또 다른 이유로 작용했다.<sup>29)</sup>

당시 오사카 지역 내에서 제주인들의 이주노동은 농업이나 어업은 극소수였고 공장지대의 직공에 집중되어 있었다. 산업적으로 보면 고무, 철공, 유리, 법랑과 같이 열악한 환경의 공장에 취업이 집중되어 있었다.<sup>30)</sup> 당시 해당 지역 일본인들이 어로(漁撈)나 주조(酒造)에 주로 종사한 것을 감안하면 현지인들이 꺼리는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으로 보면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15세 이하의 유년층이 극히 적은 반면 50세 이하의 청장년층이 현저하게 많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sup>31)</sup>, 이는 제주도의 산업활동 가능 인구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이

27) 하라구치 쿠만, 『제주도의 지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0, 140쪽.

28) 황경수,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耽羅文化 제23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03, 107쪽.

29) 강동식 외, 『일제강점기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발전연구원, 2009, 297/145쪽.

30) 하라구치 쿠만, 앞의 책, 2010, 114쪽.

31) 하라구치 쿠만, 앞의 책, 2010, 121쪽.

주노동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사카 일대에 근거를 둔 일본인 공장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제주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제주'라는 동일 지역에 기반하여 상호간에 유대감이 남다르고, 척박한 환경을 가진 제주라는 화산섬에서 살아가면서 근면함이 몸에 밴 생활력 강한 제주인이야말로 노동자로 고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일본인들의 호감을 바탕으로 제주인들은 앞서 이주노동에 뛰어든 이들이 뒤이어 바다를 건너오는 동향인들을 돌보고 배려하면서 오사카 일대에 집중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노동자들이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하는 양상은 당시에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sup>32)</sup> 예를 들어 경상남도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게 된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의 다수가 해당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히로시마 일대의 군수공장에 합천 출신이 집단적으로 이주노동을 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향 아래 제주에서 일본 오사카 지역으로의 이주노동의 순환적인 연쇄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동시대 제주 사람의 약 25%가<sup>33)</sup> 일본에서 삶의 근거지를 만들어 산업활동을 영위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떠나온 고향 제주에도 막대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6〉 도항자 송금액<sup>34)</sup>

(단위: 圓)

연도	송금액	일인당	연도	송금액	일인당
1926	774,784	27.06	1932	685,155	18.96
1927	956,571	31.36	1933	857,919	29.39
1928	1,289,714	39.54	1934	1,053,940	21.05
1929	1,243,301	35.20	1935	1,006,985	20.88
1930	799,180	25.14	1936	1,087,518	23.40
1931	715,012	21.65			

\* 비교: 본 <표>는 우편국을 경유한 송금 기준임

32) 하라구치 쿠만, 『제주도의 지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0, 144쪽.

33) 하라구치 쿠만, 『앞의 책』, 2010, 142쪽.

34)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7, 24-25쪽.

### Ⅲ. 재일 제주인 공동체의 형성과 제주사회의 변동

#### 1. 재일 제주인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특징

일제강점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하게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인적, 물적인 이동과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시기이다.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냉전이 격화된 이후로 국가 간 교류가 오랫동안 단절되어온 근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1945년 이후 80년 가까이 그러한 교류단절의 상황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 제주와 오사카 간 해상항로가 활발한 인적 교류를 강화시켰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 오사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제주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포사회를 보면 일제강점기 제주-오사카 항로를 통한 이주노동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현재 일본지역, 특히 오사카를 중심으로 교포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친목단체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를 보면 일제강점기 제주도 내의 어느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오사카로 삶의 터전을 옮겨 살아왔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표 7> 재일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현황<sup>35)36)</sup>

제주도	읍면	동 리	기타		
재일제주도친목회 (대판제주친목회)	제주시	화북동	대판화북1동부인회	재일 두신 친목회	
		회천동	회천동재일교포친목회		
외도동		재일외도동친목회	재일연대친목회		
		내도동			내도동대판친목회
재일제주도민회		내도동	내도동동경친목회		재대판 제일중 동창회
		월평동	재일월평친목회		
재일제주청년회 (대판)		오리동	재일오리출신모국방문단	재일본오리교포회	
			이호동		
재일대판제주도					

4단체종합추진 위원회			현사부락친목회				
			도두동		사수동출신재일동포일동 재일도두친목회		
			도남동		재일도남친목회		
			영평동		재일영평친목회		
			봉개동		재일대판친목회		
					재일본봉개동친목회		
			건입동		산지용진회재동경향우회		
					동경산지친목회		
노형동	해안동친목회						
재일제주도체육회	서 귀 포 시 (서 귀 읍)	재일 서귀읍 친목회	대천동	재일본대천동월평부인회			
재일본제주도 새마을부인회 대판본부			중문동	중문친목회일동			
				중문출신부인회			
재일제주도 부인친목회(대판)			예래동	예래동관서친목회			
				예래동동경친목회			
재일제주대학도서 기증위원회			하례리	재일하례리하동친목회			
				하원동		하원출신친목회	
재일교포 향토방문단(대판)			강정동	재일본강정국교후원회			
				효돈동		재일본효돈공진회(대판)	
						법환동	대판제법건친회
							재대판제법친목회
재대판제법부인친목회							
재동경법환유지회							
재일경도 부인친목회(경도)			귀덕리	재일본귀덕친목회			
	대판귀덕친목회						
탐라연구회 (동경, 대판)	한 림 읍	재일한림읍 부인회	협재리	재일협재리친목회(대판)	재룡지구 약기기증 위원회		
			수원리	재일수원리향우회			
				수원국민학교출신			
			옹포리	재일옹포리친목회			
				재일옹포출신청년회			
탐라라이온스클럽	금능리	재동경금능친목회					
샌다이제주 로타리클럽	북 제 주 군	애월읍 대판친목회	장전리	재일장전친목회	제 주 계 림 클럽		
			하귀리	귀일리미수동출신친목회			
				동귀리		재일동귀리친목회	
			신엄리			재동경신엄유지회	
				재동경신엄중후원회			
			재일본샌다이제우회	곽지리		재일곽지리친목회	
						광령리	재일광령친목회
			재일오현동창회	금성리		재일본금성리협의회	
						중엄리	재일중엄리친목회
			재일제주북교 34화동창회	애월읍 친목회		재일 애월읍 친목회	재대판고내리친목회
고내리	재동경고내부인회						

	조천읍	재일교포 10인 친목회	와흘리	재일고내리친목회		
			선흘리	재일와흘친목회		
			북촌리	재일선흘친목회		
				재일북촌친목회		
		재일교포 가로포장 추진위원회 (대판)	함덕리	동경북촌리친목회		재일함덕리친목회
				재일함덕리부인회(대판)		
				함덕교제1회동창회		
		조천읍 제3회졸업생	신촌리	재일신촌친목회		신촌교제4회졸업생(대판)
				재일신촌교5회동창회		
				신촌교제9회졸업생		
				신촌교연합동창회		
		재일 조천친목회 (대판)	조천리	조천국교제17회대판		
		한경면	한경면 동경친목회	신창리		재동경신창친목회
	판포리			재일판포친목회		
				재동경판포친목회		
	한원리		재일관서지구한원친목회			
			재동경한원리부인회			
	재일한경친목회		고산리	재일고산친목회(동경)		
			재일고산증증축위원회			
	구좌읍		용수리	재일용수친목회	산내협의회	
			저지리	재일저청중후원회		
			김녕리	재동경김녕친목회		
			송당리	재일송당리협력친목회		
			평대리	재일평대리친목회(대판)		
	재일본세화리협의회					
	상도리	재일본세화부인회				
		상도리상조회				
	우도면	연평리	재일연평친목회(대판)			
남제주군	대정읍	재일대한 대정고을 친목회	가파리	재대판가파친목회		
			상모리	재동경상모리교포회		
	성산읍	재일 성산친목회 재일 성산상우회 재일 대판성산 친목회 재일	신산리	재일신산친목회		
			수산리	재일수산국교후원회		
				재일수산부인회		
재일수산리친목회						
난산리	재일난산친목회(대판)					

		대판교민 친목회			
	남 원 읍	재일 남원친목회	신흥리	재일신흥리민회	
		남원 재일제주 청년회	신례리	재일신례1리출신(대판)	
		남원읍 청년회	태흥리	재일태흥인교육후원회	
				재일동경거주태흥친목회	
		위미리	재일위미국교졸업생		
	안 덕 면		감산리	재일안덕감산친목회	대판상은 보시상우회
			덕수리	재일본관동덕수부인회	
				덕수출신대판친목회	
			화순리	재일화순청년회(동경)	
			대평리	재일대평리친목회	재일제성회
				재일대평국교동창회	
표 선 면	재일 표선상고 후원회				도라지회

■ : 어촌계가 있는 해안마을 표시

일본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모임들에서 해녀물질 등 어업과 관련이 있는 해안마을과 농업이나 목축업을 생업으로 삼는 중산간마을로 구분해보았다. 다소 어렵게 음영처리된 것이 해안마을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에는 제주시에 56개와 서귀포시에 46개 어촌계를 합쳐서 모두 102곳의 어촌계가 있다.<sup>37)</sup> 어촌계의 존재 여부로 어촌과 비어촌을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제주도 전체의 법정동과 행정리를 합쳐서 234개의 마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 마을의 약 43%가 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보이는 그림은 그러한 분류를 통해 지역별로 일본 내 친목모임을 정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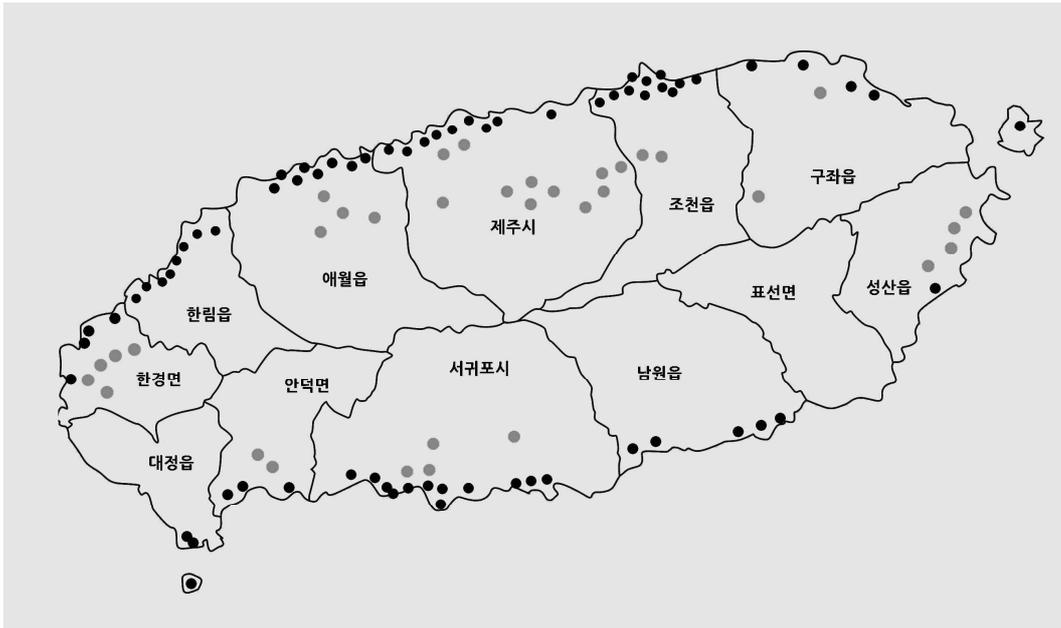
35) 김희철, 진관훈,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3(1):10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07, 114-115쪽. 표 재가공.

36) 이 자료는 2007년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1차 가공된 것이다. 근래에는 세대가 거듭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모임 구성원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활동을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활력을 보이지 못하고 적지 않은 모임들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37)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해양수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20, 130쪽.

<그림 1> 지도상에 표시한 재일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 해안마을 / ●: 중산간마을



<그림 1>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현재의 제주시 지역 그리고 제주시와 가까운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출신이 운영하는 친목모임이 상당히 많고, 서귀포 지역에서는 법환동과 강정동 등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시에서 멀리 떨어진 표선면 지역에서는 친목모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비균질적인 지역별 분포가 일제강점기 이주노동의 양상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1934년 마쓰다 이치지(柁田一二)가 논문에서 제시한 마을별 출가노동 인구수와<sup>38)</sup> 위 그림 1)의 친목모임 분포가 놀라울 정도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마쓰다 이치지는 제주읍이 위치해 있던 현재의 제주시 원도심 지역과 해안도로가 일찍 개통되어 통조림공장, 제빙공장 등이 존재했던 한림읍 지역, 서귀포시 법환동과 하효동 출신의 출가노동 제주인이 많았던 반면에, 제주시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도로 등의 인프라가 늦게 갖춰진 서귀포시 표선

38) “출가자의 집단지역 1)제주성내중심지역 2)한림중심지역 3)서귀포중심지역. 상기지역들은 핵심지역이며 4)표선중심지역은 희소지역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다.” 하라구치 쿠만, 『제주도의 지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0, 106-112쪽.

면 지역에서는 출가노동자가 적었다고 했는데, 현재의 친목모임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읍면별 출가노동자의 숫자와 현재 일본에서 유지되고 있는 각종 친목모임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래전 과거 제주인들의 행위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제주인들의 일본 오사카 지방으로의 대대적인 이주노동은 당연히 제주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해녀들의 출가물질이나 어민들의 상업적 어로활동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 농업지역과 어업지역의 경제력 차이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제주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 2. 일본으로의 이주노동과 제주사회 변동의 관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마을들은 해안지대에서 거리를 두고 세워졌다. 해안가에 자리잡은 마을인 이른바 ‘개촌’은 수시로 염해 등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토지가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는 중산간의 ‘반촌’에 비해 부족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제주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농경이 중심이 되는 반촌지역 사람들이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개촌 여성들의 물질노동이 교환경제를 통해 환금성을 인정받으면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표 8>은 1939년 무렵에 중산간 이상의 마을과 저지대 및 해안지대 마을의 생활비 차이를 보여 준다.

〈표 8〉 제주도 및 내륙지방의 농민생활비 비교<sup>39)</sup>

(기준 : 1939년 금액 단위: 엔)

지역	내륙지방				제주도			
	황해	평남	충남	전남	고지대	중간지대	저지대	해안지대
총계	140.97	146.34	121.06	121.06	62.00	82.04	112.98	114.42
1인당 금액	38.60	40.10	33.20	33.20	17.00	22.50	31.00	31.30

농민의 생활비를 비교한 자료이지만 제주의 해안마을에서도 농업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발 고도에 따른 제주의 지역별 생활수준을 기늠하기에 충분하다. 표 8)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제주도 저지대 및 해안지대의 생활비 지출은 내륙지방과 대등한 수준인 데 비해서 고지대 및 중간지대 마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해안지대 마을의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은 고지대 마을이 갖고 있지 못한 조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해녀들의 출가물질과 해안지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고지대와 해안지대의 차이를 만들어낸 변화의 출발점으로 한반도 내륙을 비롯해 일본 오사카 지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해상운송의 확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이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이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인들의 의식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주노동의 경험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오사카에 거주하던 제주인들의 상당수는 지역을 기반으로 다져진 단결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각종 권익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계급의식 혹은 민족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함께 형성되었다. 이는 제주에서 오사카로 이주한 제주인 대다수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 내에서 거주하며, 유사한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을 가진 공장에 근무했기에 가능했다. 일제강점기 오사카 지역에서 발생한

39)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 2, 일제강점기』, 제주특별자치도, 2011, 367쪽.

상당수 노동쟁의에 제일 제주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투쟁경험을 공유하면서 당시의 주요한 사상적 흐름인 사회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일본자본에 의한 제주-오사카 항로 독점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동아통항조합 설립운동과 관련해 ‘무산 계급의 배라는 표현이 오사카에 근거를 둔 제일 제주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된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제주인들의 각성과 집단적인 의식화는 후일의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방 직후에 발생한 제주의 비극 4·3사건에는 일본에서 고향으로 귀환한 제주인 다수가 참여했는데,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분단의 영속화를 우려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미군정에 의한 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과정에서 일본에서 귀환한 제주인 상당수가 다시금 일본으로의 밀항을 선택한 것도 일본, 특히 오사카에 제주인들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1945년 해방 이후 제일 제주인들의 제주에 대한 물적지원이 상당했다. 이는 제주-오사카의 항로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오사카 항로가 만들어낸 제주인들의 이주노동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해방 이전, 일본 내 제주인들은 동향 출신의 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해방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주인들의 동향 모임이 속속 생겨난 것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던 조선 출신에 대한 반감과 차별에 의해 가속화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겨난 제일제주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본 내 제주인들은 적극적으로 고향 제주의 근대화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자신들 출신지역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와 같은 인프라 확충을 시작으로 제주도 전체에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각종 지원들을 이어 나갔다. 지금 제주도가 굴 산지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일본 내 제주인들이 기존 밭농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감귤묘목을 보내온 덕이 크다.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이러한 기부와 기여활동의 전개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이주노동

이 제주의 현재를 만들어온 하나의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재일 제주인들의 감귤 묘목 보내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969년과 1970년만 보더라도 2차례에 걸쳐 총 40만여 그루가 전해지기도 했다.<sup>40)</sup> 당시 제주는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해녀의 출가물질 또한 막히면서 지역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재배 초기에 ‘대학나무’라 불릴 정도로 고소득을 안겨줬던 이러한 ‘감귤나무 보내기 운동’은 이후 제주의 감귤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960년대부터 재일 제주인들은 본격적으로 각자 자신의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혹은 제주도 전체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부활동에 나서게 된다. 지금도 제주의 마을에는 해당 지역출신 재일 제주인의 동상이나 공덕비 등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실제로는 그리 부유하지 않은 재일 제주인들도 열성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했다고 한다. 다음의 표는 제주의 각 읍면별로 개인과 단체가 기부한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재일제주인 마을 발전에 대한 공헌 현황<sup>41)</sup>

(단위: 천 원)

제주시	현금		현물		서귀포시	현금		현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한림읍	455,397	302	66,934	199	대정읍	394,862	192	78,116	73
애월읍	578,650	296	100,736	197	남원읍	342,881	101	73,932	155
구좌읍	1,318,275	561	134,655	284	성산읍	280,118	214	224,871	205
조천읍	767,022	422	85,403	182	안덕면	203,147	330	29,679	91
한경면	178,647	187	77,183	157					
추자면	-	-	4,213	8	표선면	1,262,807	295	109,475	99
우도면	6,988	14	2,679	33					
일도동	600	2	6,406	5	송산동	12,429	36	12,619	24
이도동	94,245	76	8,327	14	정방동	3,018	14	2,118	11
삼도동	55,550	17	1,436	7	서홍동	5,010	27	19,456	18
건입동	31,572	13	20,987	22	동홍동	13,390	7	470	2

40) 고광명, 진관훈,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14,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30쪽.

41) 제주특별자치도, 『愛郷의 보람 : 道民의 時代 새로운 批戰』, 제주특별자치도, 2007.

용담동	15,902	17	3,577	8	천지동	4,523	5	420	2
화북동	93,612	39	29,660	39	중앙동	-	-	500	1
삼양동	30,623	52	290,245	53	중문동	87,468	164	12,988	46
봉개동	6,385	13	1,299	10	효돈동	130,078	22	9,868	41
아라동	36,979	4	34,148	12	영천동	11,181	24	19,155	9
오라동	22,348	30	89,504	17	대륜동	810,108	71	32,141	54
연 동	4,131,599	46	407,035	2	대천동	23,004	32	2,229	26
노형동	10,139	26	8,746	16	예례동	150,026	115	9,456	30
외도동	261,796	68	21,896	48	합계	3,734,050	1,649	637,493	887
이호동	29,006	157	866	5					
도두동	20,072	37	18,496	10					
합계	8,145,407	2,379	1,414,431	1,328					

역시 제주시와 동쪽으로 접해 있는 조천읍의 해안지역 그리고 서쪽으로 인접한 애월읍과 한림읍 출신 재일제주인의 기부금액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친목모임 분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표선면의 사례인 듯하다. 일제강점기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비교적 적었고 이에 따라 현재 활동하는 친목모임도 거의 없다시피 한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 제주인의 기부금액과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점은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표선면 출신 유력기업가의 존재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화학공업으로 성공한 표선면 가시리 출신의 사업가 안재호 선생을 비롯해 오찬익 등 널리 알려진 기업가들이 많다. 한편 제주에서도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표선면의 경우에는 표선면 생활체육관 건설, 오일장 신축 등과 관련해서 큰 금액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기부와 기여활동이 제주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면서 제주는 물류운송의 곤란함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닿기 힘든 지역적 여건의 불리함을 일찌감치 제거할 수 있었다. 전기, 전화, 수도와 같은 핵심 인프라는 물론이고 도로의 일부마저도 재일 제주인들의 기부 덕분에 건설이 가능할 수 있었다. 감귤 묘목의 기증으로 인해 감귤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나, 지역 내 교육관련 사업에 힘을 보탬으로

써 제주의 인적자원 양성에 기여한 것에서도 또한 제일 제주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출륙금지령이 해제되고 곧바로 이어진 개항으로 인해 제주는 근대화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다. 제주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자원이 극히 부족했고, 농업에서도 역시 척박한 토양과 변덕스러운 기후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여의치 않았다. 한마디로 마땅한 산업이 부재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주는 한반도 전체로 보았을 때 구조화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위기상황이 임박해 있던 것인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이 생겨난다. 제주 여성들, 즉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출가물질’과 남녀 공히 활발히 나섰던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이 침체위기의 제주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주는 한반도의 권력집단이 보기에 오랜 기간 동안 변방이었고, 일본이 보기에 오키나와와 유사한 변방의 섬이었다. 하지만 한반도와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변방의 섬에 오히려 지리적 결절점, 즉 중간지대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해녀들의 출가물질과 제주인들의 일본 이주노동이 없었다면 아마도 제주는 경제적으로 뿌리가 뽑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일제강점기 동안 제주인들의 일본 유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열악한 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지 않은 것은 분명 출가해녀와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 각국의 국경이 닫히고 교류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제주는 제일제주인의 기여에 힘입어 감귤산업과 관

광업 육성을 통해 근대적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물론 일제강점기 제주-오사카를 잇는 항로의 개설이 제주인들의 이주 노동을 촉발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한 시기의 일본사회의 역동성과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장점이 서로 결합되면서 이주노동이 활성화된 측면이 강하다. 제주-오사카 항로의 개설은 그러한 상황을 촉발함과 동시에 가속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제주인들의 일본 이주노동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사회적 현상이 될 수 있었다.

어쩌면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제주인의 이주노동이라는 작은 물결이 현재 제주가 가진 산업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제주에서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은 당시 제주와 일본 오사카 지역이 각각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정정도 선택의 여지 없이 진행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측면까지 오늘날 제주의 모습을 만들어낸 매우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전례없이 심층적이면서도 급격히 전개된 근대화라는 시대상의 변화에 맞서 주체의 자각을 토대로 능동적 대응을 이어온 제주인들의 역동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오사카 지역으로의 이주노동은 척박한 화산토양에 살면서 형성된 근면과 성실이라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다는 점과 이후 또 다른 정체성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광명,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마을 발전에 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66,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 \_\_\_\_\_,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보고서, 2013.
- \_\_\_\_\_,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일본근대학연구』 22, 한국일본근대학회, 2008.
- 고광명, 진관훈,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14(1),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 강대원,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
- 강동식 외, 『일제강점기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발전연구원, 2009.
- 김시중,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돌베개, 2016.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김은희,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2010.
- 김희철, 진관훈,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3(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07.
- 김창민, 「재일 제주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문화적 기초」, 인문학연구, 59(4), 인문과학연구소, 2020.
- 노우정,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서지영, 「식민지 시기 일본 공장으로 간 제주 여성」, 『비교한국학』 18(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 안미정,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_\_\_\_\_, 「국경이 놓인 오사카 재일한인 여성의 가족과 친족」,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역사문화학회, 2010.
- \_\_\_\_\_, 「오사카 재일(在日)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耽羅文化』 32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08.
- 양정필 외,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제주학연구센터, 2021.

- 이익태, 『지영록(知瀛錄)』, 제주문화원, 2019.
- 전은자, 「濟州人の 日本渡航 研究」, 『耽羅文化』 32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 정선영,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 2, 일제강점기』, 제주특별자치도, 2011
- 제주특별자치도, 『愛郷의 보람 : 道民의 時代 새로운 批戰』, 제주특별자치도, 2007.
- 진관훈,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기증에 관한 연구」, 『法과 政策』 제13집 제1호,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研究所, 2007.
-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 3(1) 전라남도』, 한국학술정보, 2018.
-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耽羅文化』 제26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05
- 하라구치 쿠만, 『제주도의 지질』,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0
- 하지영, 「1910년대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연안항로 경영과 지역」, 『역사와 경계』 109, 부산경남사학회, 2018.
- 한종완, 임영언, 「재일제주인의 문화정체성과 제주도경제사회 관계 연구」, 『재외한인연구』 0(34), 재외한인학회, 2014.
- 현미애,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향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황경수, 「해방 이전의 제주도-일본항로 탐색과 관광자원화 방안」,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20(1), 한국지역개발학회, 2008.
- \_\_\_\_\_, 「해방이전 제주항로변화가 제주도 육상교통에 미친 영향」,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48(6), 대한교통학회, 2005.
- \_\_\_\_\_,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耽羅文化』 제23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03

[자료]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5.

-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7.
-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 朝鮮總督府 農商工部 『韓國水産誌』, 1911.
- 小川伸彦, 寺岡伸悟, 「在日社会から「故郷」濟州島への寄贈 :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 『奈良女子大学社会学論集』 2, 1995.
- 高橋 昇,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 未來社, 1998.
- 栢田一二, 『濟州島の地理學的 研究: 1930年代의 地理・人口・産業・出稼 狀況 等』,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 栢田一二, 「濟州島人の内地(日本國) 出稼に就て」, 『大塚地理学会 論文集』 第5輯, 1935.
- 辛在卿, 「<君が代丸>についての歴史的考察」, 『京都創成大学紀要』第7卷, 2007.

Abstract

Migrant labor from Jeju to Osak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subsequent changes  
in Jeju Island

Noh, W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fluences made by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direct marine transports route between Jeju Island and Osaka, Japa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Jeju Island has long been the periphe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Jeju was in the state of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even after the compulsory port opening by Japan, Almost all industries of Jeju were not competitive at that time and the number of unemployment has consistently increased. Only Haenyeo(Women divers)'s labor had a competitiveness in the modern market economy system. Jeju had almost no material foundation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Confronted by such serious crisis, the people of Jeju Island discovered solutions outside their island. The haenyeo of Jeju Island choose immigrant working named Chulgamiljil(seafood gathering outside Jeju region) heading the coastal areas of Japan. And the great number of Jeju people went to Osaka, Japan and they got jobs at factories in Osaka region. At that time, Japan suffered serious labor shortage because they were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 growth. Jeju people could get jobs they needed

---

\* Ph.D.student,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Jeju National University.

in Osaka and the Japanese industrialists could employ relatively cheap labor forces from colonial region of Jeju.

Key-words: Seasonal Migrant Diving, Kimigayomaru, Jeju immigrants in Japan, migrant workers, Japanese Ruling Era, Jeju-Osaka Sea Route, Jeju Haenyeo(sea divers), Community

논문투고일 2022. 10. 14.

심사완료일 2022. 11. 16.

게재확정일 2022. 11. 18.